

관중석에서 날아든 공이 투수 강타... “생전 처음 보는 일”

메이저리그(MLB) 경기에서 마운드에 있던 투수가 어디선가 날아온 공에 복부를 강타당하는 일이 일어났다.

지난 27일 ‘스타뉴스’에 따르면 시애틀 매리너스의 우완투수 조지 커비(25)는 전날 워싱턴주 시애틀에서 열린 휴스턴 애스트로스와의 2023 메이저리그 홈 경기에서 선발로 등판, 6이닝 5피안타 1볼넷 4탈삼진 무실점으로 승리투수가 됐다.

그런데 이날 경기에서 사상 초유의 해프닝이 벌어졌다. 문제의 장면은 6회 초에 나왔다. 선두타자에게 안타를 맞았지만 이후 두 타자를 뜬공과 삼진으로 처리하며 2아웃을 잡은 커비는 상대 타자 카일 터커와 승부를 벌이고 있었다.

그런데 볼카운트 1볼 1스트라이크에서 3구째 파울이 나온 후, 투구를 준비하던 커비에게 어디선가 갑자기 공이 날아들었다. 공은 그대로 커비의 복부를 때렸고, 공에 맞은 커비는 어리둥절한 표정을 지었다.



▲ 관중석에서 날아온 공(왼 안)이 시애틀 투수 조지 커비의 복부를 강타하고 있다. 사진=중계화면 갈무리

황당한 사태에 경기장엔 야유가 퍼졌고, 스카트 서비스 시애틀 감독은 심판에게 다가와 어떻게 된 일인지 물어보는 몸짓을 했다. 중계화면에서 보여진 영상에서는 3루 쪽에서 공이 날아온 것으로 보였다. 다행히 커비는 실점

없이 이 이닝을 마쳤다.

경기 후 해프닝의 전말이 밝혀졌다. 시애틀 타임스에 따르면 해프닝은 한 10대 소년이 터커의 파울볼을 잡은 후 이 공을 다시 그라운드로 던지면서 발생했다. 시애틀의 스카트 서비스 감독은 “그 소년은 휴스턴의 파울볼을 경기장에 던지는 게 맞는 일이라고 생각했다고 한다.” 고 말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지” 라고 생각했다. “이전에도 본 적이 없고, 확실히 우리 홈에서는 더욱 본 기억이 없다.” 며 “기대하지 않던 일이었다.” 고 말했다.

공을 맞은 당사자인 커비는 “정말 놀랐다. 공을 달라는 제스처를 했기 때문에 심판이 던질 줄 알았다.” 며 당시의 심정을 밝혔다.

이날 경기는 커비의 호투 속에 시애틀이 6-2로 휴스턴에 승리를 거두었다.

NBA ‘MVP’ 엠비드의 최종 선택은 미국? 프랑스?

미 프로농구(NBA)의 ‘MVP’ 조엘 엠비드(필라델피아)는 다가오는 2024 파리올림픽에 어느 나라 유니폼을 입고 뛰게 될까?

지난 25일 농구매체 ‘점프볼’에 따르면 유럽 농구 전문 매체 ‘유로뉴스’는 이날 ‘프랑스 농구협회는 엠비드에게 2024 파리올림픽 출전 여부를 10월 10일까지 답변해 주기를 기대한다’ 라는 제목의 기사를 게재했다.

엠비드는 NBA 최정상급 빅맨으로 지난 시즌 66경기 평균 33.1점 10.2리바운드 4.2어시스트를 기록하며 맹활약했다. 니콜라 요키치(덴버)와 치열한 정규리그 MVP 경쟁을 벌인 끝에 엠비드는 데뷔 후 처음으로 MVP에 선정되는 영광을 누렸다.

지난 시즌 이처럼 눈부신 활약을 펼친 탓에 내년에 개최되는 파리올림픽에 엠비드가 어느 나라 유니폼을 입고 코트를 누빌지 주목 받고 있다. 엠비드는 현재 프



▲ 조엘 엠비드, 사진=AP/뉴스시

랑스와 미국, 여기에 모국인 카메룬 국적까지 보유하고 있다.

현실적인 상황으로는 프랑스와 미국, 둘 중 한 곳이 유력하다. 특히 프랑스는 자국에서 열리는 올림픽이기에 엠비드의 합류를 더욱 원하는 상황이다. 엠비드가 합류한다면 ‘특급 신인’ 빅터 웨반(아마산토니오)

와 루디 고베어(미네소타), 에반 포니에(뉴욕) 등과 함께 강력한 로스터를 구축할 수 있다.

프랑스 농구협회 장 피에르 시우타 회장은 프랑스 라디오 방송국 ‘RMC’와 인터뷰에서 “우리는 엠비드와 대표팀 합류에 대해 논의할 기회를 가졌고, 현재 결정을 기다리고 있다. 10월 10일까지 답변받기를 기대한다.” 라고 밝혔다.

2023 FIBA(국제농구연맹) 남자농구 월드컵에서 ‘노메달’ 수모를 겪은 미국 역시 엠비드의 합류는 큰 힘이 될 수 있다. ‘전설’ 르브론 제임스(레이커스)는 일찌감치 파리올림픽 참가를 희망했고, 스테픈 커리(골든스테이트), 케빈 듀란트(피닉스) 등 현역 최고 선수들을 설득하며 ‘드림팀’을 구성하고 있다는 소식이 전해지기도 했다.

과연 엠비드의 최종 선택지는 어디가 될까? 결정의 위해 그에게 주어진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

한국 전통 대낚시 [☆] 무료교육

• 미국에서도 낚시를 배우실 분 모집합니다 •

- * 개인이 무료교육 봉사합니다.
 - 초보자 환영 / 주말에 같이 출조하실 분
 - 캠핑 낚시 / 벙에돔 바다 낚시
 - 낚시에 관한 모든 교육
- <이메일 문의하세요>
abocado3228@naver.com

